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라

(갈 6:8, 엡 3:16-19)

사울은 세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덕과 인격과 정신이 다 건강하고, 국가관과 애국심이 뛰어나고, 겸손하며 예절 바르고, 키도 크고 준수하고, 남의 말도 경청하고, 군사적 전술과 전략도 뛰어나고, 백성을 감동시키며 힘을 모으는 능력도 리더십도 다 갖추었습니다. 준수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후르 와토브(בְּחֹר וְטוֹב)’이며, 젊고 건강하고 잘생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어 ‘이 나라가 내 것이며, 내 손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나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영적으로 잠들게 되고,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고, 영적 무관심으로 영적 감각이 무디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었으니 내 돈이고, 이 돈이 내 것이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 마음대로 돈을 쓰며 즐기자.’라는 생각은 사실 당연하고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영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나라 안팎이 평안하고 번영하고 안정된 것이 내 통치 능력 때문이고, 모든 백성이 굴복하고 충성하는 것은 당연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예배드릴 일을 나라 안팎에서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삼상 14:35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모든 백성이 바치는 영광은 다 받으면서도 이 영광의 자리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 영적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울무에 걸려 왕의 자리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본 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까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 첫째 시험: 제사를 경홀히 여김(삼상 13:1 이하)

사울이 영적 잠을 자면서 불과 1년 만에 국력은 심히 약해졌고,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 군사력

사울의 군대는 3천 명이었으나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인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삼상 13:1-5)

2) 정신력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러 모이지 않고, 바위틈으로 숨고, 탈영병이 생기고, 불안에 떨었으며, 왕의 통치력은 무너졌습니다.(삼상 13:5-7)

3) 사울은 길갈에서 사무엘을 급하게 찾고 기다렸으나 그가 오지 않자 직접 번제를 드림으로 영적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실 것을 암시합니다.(삼상 13:8-14)

그는 왕이 되어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 가져도 하나님께 직접 제사 드리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죄를 범한 것입니다. 번제는 가장 거룩한 제사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무나 드릴 수 없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이며, 제사 드릴 때 의복과 정결예식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왕이라고 하는 세상 힘과 권력을 가지면 기도, 찬양, 예배, 목사, 설교, 안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세상의 것을 다 가지면서 영적 관리를 못하여 이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영적 관리를 못하면 당황하고 무리하고 실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서 끊임없이 영적 관리를 잘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지켜 주셔서 만대에 왕관이 그 집과 후손을 떠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시 116:1-2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 55:17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시 95:6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 99:5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시 103:17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삼하 7:8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삼하 7:16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 둘째 시험 : 아말렉을 물리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삼상 15:1 이하)

아말렉은 악하여 400여 년 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죽인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이 지나도 그의 백성을 해친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해롭게 하는 모든 세력을 400년이 지나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척하였으나 인간적이고 육적인 생각으로 왕도 살려주고, 자기를 위하여 성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뒤에 숨겨 두었던 것입니다.

삼상 15:1-2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삼상 15:9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앞으로 모든 것을 억천만 배나 더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영적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국가의 안보가 참으로 중요한데 원수와 협상하여 자기의 이익을 앞에 둔 것은 영적 관리를 못한 데서 오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언제나 내게 유익되는 방향으로 내게 좋고, 내가 잘살고, 잘 먹고, 내 행복과 내 기쁨을 앞세우는 것이 육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도, 가인의 살인도, 발람의 타락도, 가룟 유다의 범죄도 같은 DNA에 속하는 것입니다.

삼상 15:26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다윗의 물질관을 보십시오.

삼하 8:11-12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대상 22:14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십만 달란트와 은 백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재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 금 10만 달란트=156조 420억 원, 은 100만 달란트=21조 2017억 원

대상 29:11-12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영적 사람인 다윗은 만복을 평생에, 그리고 자자손손, 그리고 영원히 받았습니다.

• 셋째 시험 : 다윗을 시기 질투함

사울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큰 위기에서 건져 낸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여 그를 죽이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국력을 소모하며 궁궐을 떠나 유대 들판을 헤매다가 오히려 본인이 죽을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다윗은 몇 번이나 그를 살려 주었습니다.(삼상 24:4, 26:8-12)

1)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다윗을 잘 활용하였더라면 본인과 국가에 큰 힘과 축복이 되었을 터인데 육의 사람은 사람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2)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사자가 밤에 개구리 한 마리를 잡으려고 물속에 뛰어들 것 같고 다름이 없습니다. 육의 사람은 미움과 질투, 증오심으로 남이 잘되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이지요, 인간적인 것은 그래서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삼상 18:6-8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3) 다윗을 죽이려고 사위로 삼고(삼상 18:22)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베어 오라고 제시하였으며, 국가적인 행사로 잔치도 하지 않고 엉뚱한 조건을 걸었으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이미 사위로 삼아야 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죽이려고만 하였습니다.(삼상 17:25, 18:25)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람은 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나라의 모든 힘으로도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시 18:1-6, 시 16:8-11, 시 33:16-20, 시 37:12-15)

삼상 23:14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시 17:8-9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 18:46-50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라도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르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어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시 35:7-8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